

Kosin Theological Journal

# 고신신학

제23호

## 위기 시대에 개혁신학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신신학회 지음

더워드

## 고신신학회

고문: 김병원 박사, 전호진 박사, 황창기 박사

편집인: 송영목 교수

위원: 강용원 교수(고신대, 교회교육 및 봉사신학, 은퇴)

김성수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은퇴)

김윤태 교수(백석대, 교의학)

김진섭 교수(백석대, 구약학)

배아론 교수(고신대, 선교학)

배정훈 교수(고신대, 교회사)

송영목 교수(고신대, 신약학)

신경규 교수(고신대, 선교학)

신득일 교수(고신대, 구약학)

신원하 교수(고신대, 기독교윤리학)

심상법 교수(총신대, 신약학, 은퇴)

우병훈 교수(고신대, 교의학)

이병수 교수(고신대, 선교학)

이복수 교수(고신대, 선교학, 은퇴)

이상규 교수(고신대, 교회사, 은퇴)

이신열 교수(고신대, 교의학)

이정기 교수(고신대, 태권도선교)

이학재 교수(대한신대원, 구약학)

이현철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이환봉 교수(고신대, 교의학, 은퇴)

임영호 교수(고신대, 봉사신학 및 선교학, 은퇴)

임창호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은퇴)

장세훈 교수(국제신대원, 구약학)

전광식 교수(고신대, 현대신학 및 기독교철학)

조성국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주기철 교수(고신대, 신약학)

최갑종 교수(백석대, 신약학, 은퇴)

최승락 교수(고신대, 신약학)

최윤갑 교수(고신대, 구약학)

한수환 교수(광신대, 기독교윤리학)

### **고신신학회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개혁주의적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형성된 모임으로서  
신학전문학술지 「고신신학」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신학연구에 관한 사역을 담당하는 신학자 모임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활동에 뜻을 같이 하여 학술연구로 참여하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

Tel: 051) 990-2187

구독료는 한 권당 10,000원이며,

뜻있는 교회 및 독자가들은 아래 구좌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600015-0334180-12 고신신학회

국민은행 105-01-0966-273 고신신학회

본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 학술지 책임자의 서면인가 없이 복사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서는 고신대학교의 후원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 Kosin Theological Journal

차례

편집자 서문 | 송영목 9

구약학

코로나 시대에 고찰하는 설교(선포)의 신학적 역할: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 최윤갑 11

신약학

야고보서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교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1:21) | 주기철 39

교의학

코로나19 시대의 창조와 섭리 이해 | 이신열 63

교회사

1-3세기 초대 기독교 성장: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 배정훈 99

실천신학

코로나19와 교회의 역할 | 송영목 133

실천신학

팬데믹 시대를 위한 루터의 목회적 실천 | 우병훈 163

기독교교육학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청소년의 요구 분석 | 이현철 205

일반논문

나실인의 규례(민 6:1-21) | 신득일 223

일반논문

김용섭 교수의 생애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사상 | 조성국 245

## 편집자 서문

이번 고신신학 23호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는 시대에 개혁 신학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자는 충실히 전달하고 회중은 온유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고, 초기교회의 성장 원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넓게는 공교회 좁게는 목회자의 실천적 역할을 되새기고, 교회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이 제안된다. 특집 논문들과 더불어, 나실인의 규례와 올 해 소천 받으신 김용섭교수의 생애와 기독교교육 사상에 대한 귀한 연구도 있다. 본 연구가 목회에 실제로 접목되고 결실하기를 소망한다.

2021년 7월

송영복

# 코로나 시대에 고찰하는 설교(선포)의 신학적 역할: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sup>1</sup>

최윤갑(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초록]

본고는 이사야 61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수행한 선포를 면밀히 조망함으로써, 설교의 신학적 역할과 중요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대면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인 비대

1. 본고는 논자의 박사논문, “To comfort All who mourn: The Theological and Hermeneutical Function of Isa 61-62 in the Book of Isaiah” (Ph.D. Thesi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16)의 제3장 일부분과 논자의 계제 논문 “A Theological Viewpoint Regarding the Purpose of Preach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clamation in Isaiah 61,” 『생명과 말씀』 24 (2019): 183-221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하지만 본고는 두 가지 면에서 신학적·실용적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이전의 두 논문이 사 61장의 종의 선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와 연결되었다고 논한 반면, 본고는 사 61장의 종의 선포가 창 1장의 창조 선포 뿐 아니라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도 신학적·주제적인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더욱 발전시켜 논하였다. 둘째, 이전의 두 논문이 영어로 작성된 반면, 본고는 한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글 독자들의 가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면 예배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아가 예배의 이런 변화는 설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종의 선포를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설교의 신학적 함의와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이사야 61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다루고, 그간 이 본문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과 논의들을 살핀다. 둘째 부분은 이사야 61장의 구조와 중심 주제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이사야 61장의 선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와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를 언어적·주제적인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논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논자는 본고를 통해 설교(선포)가 신앙 공동체의 새 창조를 성취하는 신적 도구임을 논증할 것이다.

주제어: 설교, 선포, 이사야 61장, 창조, 희년

## 1. 들어가는 글

본고는 이사야 61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수행한 선포를 면밀히 조망함으로써, 설교의 신학적 역할과 중요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확산시켰고,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변화” 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열었다.<sup>2</sup>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활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sup>3</sup>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의 양상은 기독교계에도 큰

2. 이일영, “뉴노멀 경제와 한국형 뉴딜,”『동향과 전망』100 (2017): 79.

3.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 노멀 시대의 목회,”『선교와 신학』52 (2020): 173.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동규는 코로나19 사태가 기독교에 미친 근본적인 영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라고 밝혔다.<sup>4</sup> 코로나 재난 속에서 성도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현상들은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교인수의 감소, 소그룹 모임 자체, 재정적 어려움, 교육과 교재의 중단—을 파생시켰다.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는 반성의 기회와 예배와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면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인 비대면 예배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런 변화의 과정은 설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어람 ARMC(오수경 대표)가 수행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예배의 변화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여덟 번째 질문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예배’라고 느껴지는, 가장 만족한 지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1위는 설문 참여자 805명 중 635명이 응답해 80%의 응답률을 보인 ‘설교’였다.<sup>5</sup> 한국교회의 목회적 상황에서 설교의 위치와 영향력을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예배의 상황은 설교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류병수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의 영성과 목회의 구심점으로 무엇보다 설교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sup>6</sup>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논자는

4.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 노멀 시대의 목회,” 174.

5. 박현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청어람ARMC』(2020. 9.), 접속 2021. 2. 12.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2>. 설문은 202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총 80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805명 중 일반 성도는 576명(71%), 목회자는 188명(23%), 가나안 성도는 40명(5%)였다. 또한 773명(96%)가 10년 이상 신앙 연수를 가진 비교적 기독교 신앙이 체화된 사람들이었다. 류병수,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목회를 위한 설교,”『신학과 실천』74 (2021), 177.

6. 논자는 본고에서 영상예배의 신학적 타당성에 대해 논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에

이사야 61장의 종의 선포를 중심으로, 설교의 신학적 역할과 중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설교의 신학적 함의와 본질적 가치를 밝힘으로써, 설교자들의 설교 사역 뿐 아니라, 교회의 예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이사야 61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다루고, 그간 이 본문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과 논의를 살핀다. 둘째 부분은 이사야 61장의 구조와 중심 주제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이사야 61장의 선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와 레위기 25장의 회년 선포를 언어적·주제적인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논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논자는 본고를 통해 설교(선포)가 언약(신약) 공동체의 새 창조를 성취하는 신적 도구임을 논증할 것이다.

## 2. 펴는 글

## 2.1. 이사야서 61장의 선행 연구와 그 한계

학자들은 이사야 61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학자들은 이사야 61:1-3에 묘사된 선포자(Proclaimer)의 경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사야 40-55장에 등장하는 종(42; 49; 50; 53장)과 이사야 61장의 종이 가진 언어적·주제적 상응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은 이 선포자가 각각 종, 종의 후손들 중 하나, 또는 복합적 인물이라고 주장하였

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설교의 신학적 역할을 논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 영상예배의 장단 점에 관해서 류병수,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복회를 위한 설교,” 171-95를 참조하라.

다.<sup>7</sup> 두 번째, 학자들은 두 본문-이사야 61:1-3과 누가복음 4:16-20-의 신학적·해석학적 관계를 살피기 위해 이사야 61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누가복음 4장이 메시야의 인물됨 보다는 사역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1-3을 읽은 것은 자신이 이사야서의 왕과 종을 통해 예견된 메시아 사역을 기독론적으로 성취하는 인물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sup>8</sup> 마지막으로, 학자들은 이사야 61장이 다른 장들과 가진 언어적·문학적 호응관계를 바탕으로, 이사야 56-66장이 이사야서에서 수행하는 해석학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9</sup> 대표적으로, 뷔肯(W. A. M. Beuken)은 이사야 61장이 이사야 40-55장에 등장하는 종(42, 49, 50, 그리고 53장)과 복된 소식의 선포자(40:9-11; 52: 7-10)를 언어적·주제적인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 선포자는 이사야 40-55장

7. W. W. Cannon은 사 61:1-3이 사 40-55장의 종의 노래 중 하나라고 여기고, 따라서 이 선포자는 사 40-55장에 등장하는 종과 동일인물이라고 여긴다. "Isaiah 61,1-3 an Ebed-Jahweh Poem," ZAW 47 (1929), 284-88을 참조하라; 반면, W. A. M. Beukens은 사 61:1-3에 선포자는 이사야 40-55장에 등장하는 종의 후손 중 한명이며, 이사야 56-66장에 등장하는 종들 공동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in *Book Isaiah-Livre Isaïe* (ed. Jacques Verheyen; 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411-42를 참조하라; 끝으로, 윌리암슨(H. G. M. Williamson)과 슬트롬버그(J. Stromberg)는 사 61:1-3의 선포자는 사 40-55장에 등장하는 복된 소식의 선포자(40:9-11), 종(49; 50; 53), 고레스(45:1-2),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자(40:1-2),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a composite character)라고 주장하였다. H. G. M. Williamson,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Paternoster, 2000), 174-88과 Jacob Stromberg, David G. Firth, and H. G. M. Williamson, "An Inner-Isaianic Reading of Isaiah 61:1-3," in *Interpreting*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261-72를 참조하라.

8. Robert B. Chisholm, "The Christological Fulfillment of Isaiah's Servant Songs," *Biblical Sacra* 163 (2006): 387-404; John Joseph Collins, "A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1-3 and Its Actualiz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in *Quest Context Mean* (Leiden: Brill, 1997), 225-40.

9. W.A.M. Beuken,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411-42; Hugo Odeberg, *Trito-Isaiah (Isaiah 56-66): A Literary and Linguistic Analysis* (Uppsala: Lindequist'ska Bokhandeln, 1931), 250-60.

에 등장하는 종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들이 암시하듯이, 이 종의 후예들이다.<sup>10</sup> 결국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40-55장의 ‘종’이 이사야 56-66장에서 ‘종들’의 공동체로의 변모하는 주제의 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경적 실례인 것이다.<sup>11</sup>

이사야 61장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이 장이 이사야 40-55장과 가진 언어적·주제적 호응관계를 바탕으로, 이사야 61장에 등장하는 선포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이사야 61장에 등장하는 ‘선포’를 하나의 중요한 논제로 상정해 그 신학적·정경적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베스터만은 양식비평(form-criticism)에 근거하여 구약 본문의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형식을 분류하였다: 구원과 심판의 선포, 논쟁, 고발, 공동체와 개인의 애가.<sup>12</sup> 이 분류에 근거해, 그는 이사야 61장을 전형적인 “구원의 선포”로 규정하였고, 이 장이 구약의 선포 형식을 통해 시온의 구원을 전달하고 있음을 다루었다.<sup>13</sup> 그런데 베스터만이 이사야 61장을 구원의 선포로

명명한 것은 선포를 하나의 문학 형식으로 다룬 것이지, 신학 주제로 조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논자가 본고에서 선포를 하나의 중심 논제로 다루고, 그 신학적·주제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구약의 선포가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와 신학적으로 깊이 연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신학적·목회적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는 설교의 성경신학적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sup>14</sup>

## 2.2. 이사야 61장의 구조와 주제

이 부분에서 논자는 먼저 이사야 61장의 신학적·문학적 전후 맥락을 살핀 후, 이사야 61장의 전체 구조와 중심 주제를 다룰 것이다.

### (1) 이사야 61장의 문학적·신학적 전후 맥락

이사야 56-66장에서 이사야 60-62장은 시온의 종말론적 회복, 구원, 그리고 영광을 묘사한다.<sup>15</sup> 특히,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에 의하면, 이사야 60-62장은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펼치면서, 이사야 56-66장의 중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sup>16</sup> 그 중에서 이사야 61-62장은 여호와의 종이 시

10. 뷰컨은 사 56-66장의 주된 주제는 사 53:10에 나오는 ‘종의 후손’이 누구이고, 사 54:17의 ‘종들의 기업’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사 61장에서 선포자가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 42장과 48:16에서 종이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더욱 정확히, 사 44:2-4와 59:21에서, 여호와의 영이 종의 후손들(seed, offspring)에게 임할 것이 예언 되었고, 그것의 성취가 사 61:1-3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 61:1-3에 등장하는 선포자는 사 40-55장의 종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중 한명, 즉 종들 공동체의 대표자이다.

11. 일반적으로, 사 61장은 56-66장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장들을 대표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사 61장의 정경적, 해석학적 역할은 더 나아가 사 56-66장의 해석학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한다. 사 56-66장에서 61장의 정경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John Knox, 1969), 296-97; John Goldingay, *Isaiah 56-66: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1-3을 참조하라.

12. Claus Westermann,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Tr. by Hugh Clayton Whit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w Press, 1991); Claus Westermann, *Prophetic Oracles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Tr. by Keith Crim (Edinburgh: T&T Clark, 1987).

13.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296-97.

14. 구약의 선포와 설교의 상관성에 관하여, 아래 자료를 참조하라. 이학재,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본 설교의 전형(Model),” 『개신논집』 9 (2009): 41-68.

15. B. S. Child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448-49; Westermann, 296;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40-66*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16; Josph Blenkinsopp, *Isaiah 56-66* (New Haven: The Anchor Yale Bible, 2003), 38; Jeffrey Shaochang Lu, “Called to Proclaim Covenantal Transformation: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Isaiah 59:21-63:6” (Ph.D. Thesis,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1999), 86.

16. Claus Westermann, *Isaiah 40-66*, 296.

온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종말론적 회복, 구원, 영광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장의 앞뒤 근접 본문들을 살피고, 동시에 신학적·문학적 상관관계를 살피도록 하겠다. 먼저, 이사야 60장은 시온에 임할 ‘외적인 회복’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sup>17</sup> 과거에 여호와는 시온 백성을 향해 진노하였지만, 이제는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혀락하신다(10절, 15절). 그때 열방의 압제자들은 몸을 굽혀 그들에게 항복할 뿐 아니라, 금, 은, 각양 물품들을 가져와 황폐된 시온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7절, 10절, 13절). 시온 백성은 열방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지만, 시온 백성을 섬기지 않는 열방은 파멸할 것이다(12절). 열방은 더 이상 시온을 과거의 황폐한 성읍이 아니라, 공의와 영광이 빛과 같이 빛나는 여호와의 보좌로 기억할 것이다.

반면 이사야 62장은 시온 백성들의 ‘내적인 변화’를 묘사한다. 이사야 62장에서 시온 백성들은 새 언약 체결을 통해 한 때 여호와와 깨어진 언약관계를 새롭게 체결한다. 그들은 옛 이름-아주바, 셔마마-대신 새 이름-헬시바, 뿐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으로 불리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4절, 12절). 그들은 언약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보호아래, 포도주를 마시고, 추수한 곡식을 먹을 것이다(8-9절).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높이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열방에서 부러움과 찬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3-5절, 12절). 특히 이 장면이 고대 사회 왕족의 결혼식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사야 62장은 머지않은 때에 시온이 여호와의 존귀한 신부로 변모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sup>18</sup>

17. Lu, “Called to Proclaim Covenantal Transformation,” 85-153.

18. 사 62:1-5의 이면에 있는 고대 왕족의 결혼 예식에 관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라. T. David Andersen, “Renaming and Wedding Imagery in Isaiah 62,” *Biblica* 67 (1986), 75-80; Christle

이와 같은 이사야 60-62장의 맥락 속에서, 이사야 61장은 시온 백성이 과거의 황폐함과 애통함에서 벗어나 기쁨, 회복, 영광을 누리는 극적인 반전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와의 종이 그 백성을 향해 구원과 위로의 신탁을 선포할 때, 마음이 상한 자는 치료를, 포로된 자는 자유를, 애통하는 자는 기쁨을 누리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1-3절). 그 날에 시온 공동체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의 언약 유품을 실천하는 ‘의의 나무(3절)’가 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전에서(60장)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된다(6절). 광의의 문맥에서 볼 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라는 이사야 1장 27의 구원 신탁이 이사야 61장에서 성취된 것이다.

문학적·주제적 구조를 살필 때, 이사야 60장이 시온의 외적 회복을 다룬다면, 이사야 62장은 내적 회복을 다루고 있다. 이 속에서 이사야 61장은 종의 선포가 시온의 종말론적 변화와 구원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자면,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60-62장은 A-B-A' 구조, 즉 카이아스틱(Chiastic: 교차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sup>19</sup> 즉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60-62장이 전개하는 시온의 극적인 구원, 회복, 영광의 성취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2) 이사야 61장의 구조와 시온의 구원

학자들은 대부분 이사야 61:1-11을 세 단락(1-7절, 8-9절, 10-11절)으로 구분

M. Maier, *Daughter Zion, Mother Zion: Gender, Space, and the Sacre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19. Blenkinsopp, 60-63; John Goldingay, 1-3.

하였다.<sup>20</sup> 하지만 논자는 이사야 61장을 네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눈다. 1-3절, 4-7절, 8-9절, 10-11절.<sup>21</sup> 특히 동사의 인칭 변화와 주제의 흐름을 면밀히 살필 때, 이 장의 구조 분석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1-7절을 1-3절과 4-7절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전체 구조를 네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누는 것을 적절하다. 1-7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는 근거를 좀 더 상세히 논한다면, 첫째, 동사의 형태상, 1-3절이 1인칭 동사를 통해, 기름부음 받은 종의 사역과 그 목적을 다룬다면, 4-7절은 3인칭 동사를 통해, 시온 공동체의 회복과 구원을 사실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둘째, 구문론적으로, 1-3절은 “? + 부정사” 형태를 일곱 번 사용하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단위로 묶고 있는 반면, 4-7절은 그런 구문론적 형태를 갖지 않는다. ? + 부정사를 중심으로, 1-3절의 구문 형태를 살피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

기름을 부으사(마사) -->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르+바세르)

나를 보내사(살라흐니) -->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르+하보쉬)

+ 자유와 놓임을 선포하기 위하여(리+커로)

+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하여(리+커로)

+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르+나헴)

+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회복하기 위하여(리+숨)

20. B. S. Childs, Joseph Blenkinsopp, and Gary V. Smith은 사 61:1-11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라. Childs, *Isaiah 500-508*; Blenkinsopp, *Isaiah 56-66*, 218-31; Gary V. Smith, *Isaiah 40-66: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vol. 15B, *The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H Academic, 2009), 628-44.

21. J.L. Koole, Lu, and R. N. Whybray는 사 61:1-11을 네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라. J.L. Koole, *Isaiah III. Volume III/Isaiah* (Leuven: Peeters, 2001), 56-66, 261-96; Lu, "Called to Proclaim Covenantal Transformation," 154-214; R. N. Whybray, *Isaiah 40-66,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1), 239-46.

+ 재대신 화관을 주기 위하여(라+테트)

표1) 이사야 61:1-3의 동사 구문 형태

1-3절은 두 개의 주절("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과 일곱 개의 목적절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문법적·주제적 일관성 갖는 1-3절은 그렇지 못한 4-7절과 구분된다. 일곱 개의 ? + 부정사 절에서 세 번 반복해 등장하는 선포 관련 동사((*bassér*: 1절, *q̄rō̄*: 1절), (*q̄rō̄*: 2절))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셋째, 주제 면에서, 1-3절은 종의 선포를 통해 시온이 경험할 변화와 회복—슬픔에서 기쁨으로, 포로에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억압에서 해방으로—을 일인칭 인물의 주관적인 톤으로 묘사한다면, 4-7절은 시온 백성의 변화—제사장이 됨, 오래 황폐한 곳들이 재건됨, 보상을 받음—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1-7절을 1-3절과 4-7절로 구분한다.

셋째 단락(8-9절)은 화자의 전환을 통해 두 번째 단락(4-7절)과 뚜렷이 구분된다. 4-7절에 지배적이던 3인칭 동사 형태는 8-9절에서 여호와의 선포를 전달하는 1인칭 남성형으로 전환한다. 이 단락은 시온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체결과 그 결과를 다룬다. 여호와와의 영원한 언약체결을 통해, 시온 공동체는 그들과 그 자손들이 열방 가운데 영화로운 백성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끝으로, 화자는 1인칭 동사 형태의 종에게 다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하는 마지막 단락(10-11절)은 이사야 61장의 결론 역할을 수행한다. 이 단락에 등장하는 종은 1-3절에서 구원의 신탁을 선포하며, 시온의 변화를 이끌었던 그 사역자이다. 그는 장차 성취될 시온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미리 내다보

며, 여호와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사야 61장을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1-3절): 종의 권능 있는 선포와 시온 백성의 변화(A)

둘째 단락(4-7절): 시온 백성의 계속되는 변화와 영광스런 사역(A')

셋째 단락(8-9절): 여호와의 영월한 언약체결과 회복(B)

넷째 단락(10-11절): 종의 반응으로서 기쁨과 찬양(C)

첫째 단락은 이사야 61장 전체에 묘사된 시온의 변화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준다. 영의 임재와 함께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시온 공동체는 종말론적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둘째 단락은 앞 단락이 이미 다른 시온의 종말론적 회복과 구원을 더욱 포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반면, 셋째 단락은 그 선포된 시온의 회복을 확정짓는 여호와의 언약 선언을 다룬다. 마지막 단락은 시온의 구원과 영광을 미리 내다보는 한 종의 기쁨과 찬양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의 종이 선포한 시온의 회복과 구원은 황폐한 상황에 놓여있던 백성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가 되었다.

### (3)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선포의 신학적 기능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이 시온 공동체를 향해 선포한 구원의 선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선포는 이사야 62장에서 다수의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전파하는 ‘지속적인 선포’의 주제로 더욱 발전한다(1, 6절). 그렇다면 선포(*qrī*)의 주제는 이사야 61장에서 어떤 신학적·주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 선포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자는 이사야 61장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와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를 언어적·주제

적인 면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 호응관계를 근거로, 논자는 선포의 주제가 창세기 1장과 레위기 25장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창조 신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 (a) 이사야 61장의 선포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

이사야 61장에 묘사된 종의 선포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 사이에는 두드러진 유사성이 나타난다. 우리는 두 본문의 유사성을 세 가지 관점—언어적, 주제적, 그리고 결과론적—에서 살펴도록 하겠다. 첫째, 이사야 61장에서 히브리어 동사 *qrī* (“선포”)는 여호와의 창조 선포를 회상함으로써 새 창조의 뉘앙스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동사 *qrī*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들—큰 소리로 부르다, 이름 짓다, 초청하다, 언급하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광고하다, 읽다—을 포함한다.<sup>22</sup> 그런데, 존커(Jonker)에 의하면, 많은 선지서에서 *qrī*는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의 “선포를 지칭하는 전문용어(technical term)”로 사용된다(사 40:2, 6, 58:1; 61:1-2; 렘 2:2; 3:12; 7:2; 11:6; 19:2; 20:8; 49:29; 온 1:2; 3:2, 4; 속 1:4, 14, 17).<sup>23</sup> 그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계획을 알릴 뿐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신적 도구로 작용한다.

창세기 1장에서 *qrī*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창조된 기본적인 사물들과 단위들—하늘, 땅, 바다, 낮, 그리고 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주로 전달한다(1:5, 8, 10).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창세기 1장의 *qrī*동사는 어떤 이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거나 이름을 부른다

22. Kindl Hossfeld, “*qrī*,” TDOT 8: 109-35; Louis Jonker, “*qrī*,” NIDOTTE 4: 971-74.

23. Jonker, “*qrī*,” 972.

는 의미보다, 창조 선포의 형식을 빌려 여호와께서 이름을 수여한다는 함의를 강하게 내포한다. 즉 여호와의 이름수여 선포는 그의 창조 선포(창 1:3, 6, 9)와 의미론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첫째, 구문론적으로, *qr*동사(창 1:5, 8, 10)는 미완료 와우 계속법 동사(waw-consecutive imperfective verb) 형태로 창조의 선포행위를 나타내는 *ymr*(“선포하다, 말하다”) 동사(창 1:3, 6, 9)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 수여 행위가 창조를 위한 그의 신적인 선포와 함께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둘째, 의미론적으로, *qr*동사는 *ymr*동사와 병치 구조(parallel)를 이루면서, 이름을 부여한 여호와의 행위가 창조를 위한 신적 선포와 동격임을 구조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대다수의 성경이 창세기 1:5, 8, 10의 *qr*동사를 단순히 “-을 부르다”라고 번역하였지만, 더욱 정확히 3, 6, 9절에 나타난 창조 선포의 뉘앙스를 살려 “선포하여 부른다” 또는 “선포하여 칭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하다’라고 번역된 *qr*동사는 태초 창조를 성취한 여호와의 이름수여 선포를 떠올리며, 종의 선포가 창조를 위한 신적 선포임을 암시한다.

둘째,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은 종의 선포가 새 창조를 성취하는 신적 행위임을 암시한다. 여호와의 영은 하늘과 땅의 만물에 생명을 부여할 뿐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며, 태초의 창조를 완성하였다. 영의 임재를 통해,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눈에 아름다운 생명체가 되었다(창 1:10, 12, 18, 21, 25, 31). 특히 여호와의 영은 선포된 말씀과 동역하여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였다. 윌프 힐더브란트(Wilf Hildebrandt)에 의하면, “강력하게 활동하는 여호와의 영의 권능을 통해, 태초의 여호와의 말씀은 그 성취를 이루었다.”<sup>24</sup> 시편 33:6

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운(rúah)”은 히브리어의 (여호와의) 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영은 태초의 창조를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놀랍게도, 이사야 61장에서, 태초의 창조에 일하셨던 여호와의 영은 이제 여호와의 종위에 임재하신다. 이것은 이 종의 선포가 단순한 언어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새)창조의 방편임을 시사한다. 즉 태초의 창조에 활동하셨던 여호와의 영은 이제 여호와의 종에게 임하여, 그를 신적 대리인으로 세울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선포된 종말론적 위로와 구원이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도록 조력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종의 선포는 영의 임재 가운데 시온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도구가 된다(61:3, 10-11).

셋째, 이사야 61-62장의 새 이름 모티프 또한 종의 선포가 새 창조를 통한 신적 활동임을 의미한다. 종이 행한 선포의 결과로서, 시온 백성들은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의의 나무(61:3), 여호와의 제사장(61:6), 남편의 기쁨이 있는 여인(62:4), 결혼한 여인(62:4). 이 이름들은 과거 어둡고 슬펐던 시온의 운명이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된 것을 짐작케 한다. 중요한 점은, 이사야 61-62장에 나타난 ‘선포’와 ‘새 이름’ 모티프의 병치가 창세기 1장에 묘사된 태초의 창조 기사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3, 6, 9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적 선포는 곧이어 창세기 1:5, 8, 10의 여호와의 이름수여 장면과 연결된다. 여호와의 창조 선포가 이름 수여를 가져 온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이와 같은 구문론적·문학적 구조 속에서, 새 이름 모티프는 태초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서 선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내포한다. 이 논의가 적실하다면, 이사야 61장에서 선포와

24. Wilf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3), 37.

함께 등장하는 새 이름 모티프는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창조의 선포와 새 이름 모티프를 언어적·주제적인 면에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가 성취되었다는 증표로서 각각의 사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여호와는 이제 이사야 61-62장에서 선포를 통한 새 창조가 시온에 성취되었다는 병거로서 새 이름들을 수여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주제의 패턴속에서, 이사야 61장의 새 이름 모티프는 종의 선포가 시온 백성들의 새 창조에 직접 개입한 신적 매개체임을 암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사야 61장에서 여호와의 영의 기름부음 받은 종의 선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였던 여호와의 선포를 언어적·주제적인 면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의 종의 선포에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를 반영함으로써, 선포가 (새)창조를 성취하는 신적 도구임을 암시하고 있다. 존 골дин게이가 잘 설명하였듯이, “선포는 발화행위를 만들고, 이것은 또한 선포된 것이 실재하도록 역사한다. 즉, 선포는 새 창조의 사건을 성취하는 특징을 가진다.”<sup>25</sup> 구속사의 흐름에서, 신적 선포를 통해 태초의 창조를 성취하셨던 여호와는 이제 영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의 선포를 통해 시온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이다. 창세기 1장과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선포 주제의 유사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John Goldingay, *Isaiah 56-66*, 298. 원 문장은 아래와 같다. “proclamation constitutes an ‘announcement ... which also gives rise to that which is proclaimed; it has an [new creation] event-character.’” 특히, 필자는 앞의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여 본 논고에 인용하였고, 마지막 한 문장은 변형하여, 이곳에 인용하였다.

	창세기 1장	이사야 61장
선포의 용어	선포하다(카라), 말하다(아마르)	선포하다(카라), 말하다(아마르)
여호와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심	종에게 기름부으심
이름 수여	하늘, 땅, 낮, 밤	의의 나무, 텁시바, 뿔라
결과	처음 창조	운명의 전환, 영광, 새 언약체결 - 새 창조

표2) 창세기 1장과 이사야 61장의 선포

### (b) 이사야 61장의 선포와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종의 선포는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를 언어적·주제적 면에서 회상함으로써, 선포가 언약 공동체의 새 창조를 성취하는 신적 도구임을 지지한다. 논자는 두 선포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겠다. 첫째, 이사야 61:1의 종의 선포는 레위기 25:10에 언급된 ‘자유의 선포’(*qrō' d'rōr*)를 반영함으로써, 그의 선포가 시온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신적 매개체임을 암시한다. 희년은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27:16-25, 민수기 36:1-4, 예레미야 32:6-15에 등장한다. 구약에서 희년이라는 명칭은 크게 네 개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다. 먼저 레위기 25:12, 27:24, 에스겔 46:17에 나오는 ‘희년’이 있고, 레위기 25:10에 나오는 ‘오십년이 되는 해,’ 이사야서 61:2의 ‘은혜의 해,’ 마지막으로 신명기 15:9와 31:10에 나오는 ‘면제의 해’가 있다.<sup>26</sup> 희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였다(레 25:10). 여기서 자유를 일컫는 히브리어 테로르(*d'rōr*)는 ‘자유, 해방, 석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레 25:10, 사 61:1, 렘

26. 박승탁, “희년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복지사상의 현대적 의미”『신학과 목회』39 (2013), 307; 김종택, “희년의 성경신학적 이해와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대한신학대학교, 2009), 7.

34:8, 15, 17). 테로르는 “풍성하게 흐르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의 아카드 동족어(*anduraru*와 *duraru*)는 “빚의 청산과 노예 해방치령”을 뜻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다.<sup>27</sup> 이 용어는 문맥에서 빚으로 팔렸으나 아직 속량되지 못한 종들이 자신들의 상속받은 땅으로 복귀하면서 자유인이 되는 해방을 의미한다(참고. 렘 34:8, 14; 겔 46:17; 사 61:1).<sup>28</sup>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 매년의 대속죄일에 속죄를 영적으로 경험한다면, 50년마다 있는 희년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sup>29</sup>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의 근본정신은 아래 구절들에서 잘 드러난다.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지며(레 25:10b)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레 25:41b)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레 25:54)

희년이 되면 땅과 백성들은 안식하였다.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난 소출을 먹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주권과 창조 행위를 묵상하였다. 하지만 희년의 가

27. H.F.W. Gesenius, 『히브리어사전』,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165-66.

28. 김의원, 『레위기 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776.

29. 최일웅, 『레위기 25장의 희년법 연구』 (목회학석사논문, 고신대 신대원, 2019), 45.

장 중요한 규례는 다름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제적 빈곤으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자유의 선포를 기점으로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백성들이 지난과 빈곤으로 젊어버린 소유지를 되돌려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희년의 정신은 그 절정에 도달한다. 따라서 신득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희년의 특징은 해방과 본래대로 상환(restitutio ad integrum)”에 있다.<sup>30</sup> 희년을 통해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 자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되돌려 받은 토지와 기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이와 같이 “토지를 무르거나 희년에 돌려주는 것, 종의 신분에서 속량되고 희년에 해방되는 것은” 에덴에서 태초의 인간이 경험하였던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원형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암시한다.<sup>31</sup> 즉, 김선종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은 비단 땅의 휴경, 노예 해방, 토지환원 등과 관련된 법률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제사장 전통의 창조 신학(창 1-2:4상)을 역사화”하는 것이다.<sup>32</sup>

중요하게도, 이사야 61:1은 레위기 25:10의 자유의 선포를 언어적·주제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반영한다.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q̄rā'tem d̄rōt*) (레 25:10.)”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q̄rō' d̄rōn*), 간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기 위하여(사 61:1).”

30. 신득일, “희년 윤리,” 『구약과 현실문제』 (서울: CLC, 2021), 148.

31. 최일웅, 『레위기 25장의 희년법 연구』, 39.

32. 김선종,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111.

레위기 25장에서 노예로 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선포를 통해 그간의 속박과 혼돈을 끝내고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돌려받은 토지를 근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61장의 종의 선포를 통해 포로 된 자는 자유를, 갇힌 자는 놓임을,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를, 가난한 자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되었다. 즉 종의 선포는 시온 공동체의 해방, 치유, 회복을 알리는 공적인 신호탄이다(사 61:1). 이사야 58:6에 의하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사회·경제적 억압과 착취 속에 고통받았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끌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회·경제적 정황 속에서, 여호와의 종의 선포는 그 백성들을 결박, 명예의 줄, 포로됨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새 창조의 선포였다. 다시 말해, 희년의 선포가 근본적으로 혼돈과 억압을 넘어 애덴의 질서와 살롬을 지향하는 것처럼, 이사야 61장의 종의 선포는 효과적인 신적 도구로서 시온 공동체의 간힘, 상처, 애통을 넘어 종말론적 새 애덴과 새 창조를 예견한다.

둘째로, 이사야 61(62)장에 묘사된 땅의 풍성한 소출과 포도주는 희년에 배출된 풍족한 농작물과 과일을 반영함으로써, 선포가 새 창조의 활동임을 지지 한다. 레위기 25:4-5와 11절에 의하면, 희년을 맞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땅을 쉬게 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허락하시는 농작물과 포도를 먹어야 했다. 희년 제도는 토지가 반환되고, 노예가 행방됨으로써, 사회가 근본부터 개신된다는 고무적인 요소를 안고 있지만, 반면 이 때를 기점으로 파종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험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 규례의 순종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풍성한 소출과 과일을 약속하였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19절).” 나아가, 풍성한 소출은 “노동의 결과로 얻은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얻는 복으로서, 타락 이전 애덴동산의 모습”과 풍요로운 낙원을 연상시킨다.<sup>33</sup>

중요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을 다루면서, 희년의 주제를 뚜렷이 반영한다. 이사야 61:6(“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 얻고”)에서 시온 백성들이 갑절의 농작물과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한 희년의 풍성한 소출을 암시한다. 나아가, 선포를 통한 시온의 회복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이사야 62장에서, 특히 8절은 포도주 모티프를 사용하여 희년에 경험되는 백성의 풍요로운 삶을 반영한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sup>34</sup> 비슷한 연대에 기록된 미가서도 구원의 때를 다루면서 희년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내비친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미 4:4; 참조. 속 3:10).”<sup>35</sup> 즉 선지서에서 포도나무와 포도주 모티프는 희년의 풍성한 소출과 풍요로움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문학 장치이다(레25: 4-5; 11; 사 62:8; 미 4:4; 속 3:10). 따라서 이사야 61-62장에서 종의 선포와 함께 시온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을 수확하고, 특히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은 희년을 맞아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사회의 개신과 새 창조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

33. 최일웅,『레위기 25장의 희년법 연구』, 38.

34. 논자는 사 62:8에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라는 문구를 히브리어 동사 *yāga'att'*의 의미에 근거하여 “네가 수고하여 빚은 포도주”로 해석한다. 이 동사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1) 약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2) 수고하다, 노동일을 하다, (3) 얻으려고 노력하다.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서 “수고하여 얻은”이라고 번역된 이 문구는 포도원이나 밭에서 수고하여 일하였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듯 하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의미상, 이 단어는 “수고하여 포도주를 얻었다, 또는 빚었다”라는 의미가 더욱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번역성경은 이 부분을 “네가 땀 흘려 얻은 포도주를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번역한다.

35. 신득일,『희년 윤리』, 153.

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61장은 희년 전통에 빗대어 시온 공동체의 새 창조를 기술하고 있고, 종의 선포는 그 창조를 촉발하고, 가능케 하는 신적 매개체로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에서, 논자는 이사야 61장의 종의 선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와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를 언어적·주제적인 면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창조 선포 뿐 아니라, 희년 선포는 공통적으로 창조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의 선포가 창조의 직접적인 양상과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후자의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새 창조를 기술하고 있다. 이사야 61장은 이상의 두 선포를 반영함으로써, 종의 선포가 그 자체로 창조의 영향력을 가진 신적 행위임을 암시할 뿐 아니라, 더욱 포괄적으로 연약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새 창조까지 성취하는 신적 매개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61장에서 영의 임재 가운데 수행된 종의 선포는 시온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도구이다.

### 3. 나가는 글

본 연구에서 논자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종의 선포를 통해 설교의 신학적·주제적 함의를 살폈다. 저명한 설교학 교수인 해돈 로빈슨 교수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에서 ‘설교 사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본질’이라고 강조했다.<sup>36</sup> 설교의 신학적·목회(실천)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기점으로 교회들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설교는 한층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면 예배에서 청중과 함께 호흡하며 설교하던 설교자는 이제 스크린을 보며 저 너머에 있는 청중을 향해 설교해야 한다. 청중의 입장에서도, 대면 예배 때와는 달리, 한층 더 전문화된 발성법, 설교 내용, 매너와 제스처를 갖추지 않으면, 영상 설교에 끝까지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 뿐 아니라, 교회의 예배에서도 긴급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설교의 본질적인 기능과 중요성을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논하였다. 이사야 61장의 종의 선포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선포와 레위기 25장의 희년 선포를 언어적·주제적인 면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자는 선포가 연약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신적 매개체임을 논증하였다. 그러므로 설교는 여호와께서 선포를 통해 성취하신 첫 창조를 구속사를 통해 오늘날에도 지속하는 항구적인 사역일 뿐 아니라, 말씀 선포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희년의 해방과 삶의 새로운 질서를 경험케 하는 새 창조의 사역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재난을 맞이한 설교자와 교회에 중요하고 시급한 신학적 함의를 전달한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신약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한 구약의 선포행위는 이 시대의 설교가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신적 매개체임을 주지한다. 선포에 관한 이와 같은 성경 신학적 해석은 구약적 관점에서 설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특히 코로나19 재난이 확산되는 이 때, 설교자가 어떠한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설교 사역을 수행할지 그 지침을 제공한다.

36. Haddon W. Robinson, *Expository Preaching: Principles & Practic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0), iii.

## 참고문헌

- 김선종.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95-117.
- 김의원.『레위기 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김종택. “희년의 성경신학적 이해와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대한신학대학교, 2009.
- 류병수.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목회를 위한 설교.” 「신학과 실천」 74 (2021): 171-95.
- 박승탁. “희년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복지사상의 현대적 의미.” 「신학과 목회」 39 (2013): 303-330.
- 박현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청어람ARMC」, (2020. 9.), 접속 2021. 2.12,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2>.
- 신득일. “희년 윤리.” 『구약과 현실문제』, 서울: CLC, 2021.
- 이일영. “뉴 노멀 경제와 한국형 뉴딜.” 「동향과 전망」 100 (2017): 78-117.
- 이학재.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본 설교의 전형(Model).” 「개신논집」 9 (2009): 41-68.
-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 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52 (2020): 171-200.
- 최일웅. “레위기 25장의 희년법 연구.” 목회학석사논문. 고신대 신대원, 2019.
- Gesenius, H. F. W. 『히브리어사전』.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165-66.
- Andersen, T. David. “Renaming and Wedding Imagery in Isaiah 62.” *Biblica* 67 (1986): 75-80.
- Beuken, W. A. M.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in *Book Isaiah-Livre Isaie*. Edited by Jacques Vermeylen. 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411-42.
- Blenkinsopp, Joshph. *Isaiah 56-66*. New Haven: The Anchor Yale Bible, 2003.
- Cannon, W. W. “Isaiah 61,1-3 an Ebed-Jahweh Poem,” *ZAW* 47 (1929): 284-88.
- Childs, B. 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Chisholm, Robert B. “The Christological Fulfillment of Isaiah’s Servant Songs.” *Biblical Sacra* 163 (2006): 387-404.
- Collins, John Joseph. “A Herald of Good Tidings : Isaiah 61:1-3 and Its Actualiz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In *Quest Context Mean*. Leiden: Brill, 1997: 225-40.
- Goldingay, John. *Isaiah 56-66: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 Hildebrandt, Wilf.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3.
- Hossfeld, Kindle. “*qr̄*” *TDOT* 8: 109-35.
- Jonker, Louis. “*qr̄*” *NIDOTTE* 4: 971-74.
- Koole, J. L. *Isaiah III. Volume III/Isaiah*. Leuven: Peeters, 2001.
- Lu, Jeffrey Shaochang. “Called to proclaim Covenantal Transformation: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Isaiah 59:21-63:6.” Ph.D. Thesis.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1999.
- Maier, Christle M. *Daughter Zion, Mother Zion: Gender, Space, and the Sacre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 Odeberg, Hugo. *Trito-Isaiah (Isaiah 56-66): A Literary and Linguistic Analysis*. Uppsala: Lindequistska Bokhandeln, 1931.
-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 Robinson, Haddon W. *Expository Preaching: Principles & Practic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0.
- Smith, Gary V. *Isaiah 40-66: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vol. 15B, *The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H Academic, 2009.
- Stromberg, Jacob. “An Inner-Isaianic Reading of Isaiah 61:1-3.” In *Interpreting*

- Isaiah: Issues and Approach.* Edited by David G. Firth, and H. G. M. Williams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261- 72.
- Westermann, Claus. *Isaiah 40-66: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John Knox, 1969.
- Westermann, Claus.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Tr. by Hugh Clayton Whit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w Press, 1991.
- Westermann, Claus. *Prophetic Oracles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Tr by Keith Crim. Edinburgh: T&T Clark, 1987.
- Williamson, H. G. M.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Paternoster, 2000.
- Whybray, R. N. *Isaiah 40-66,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 Company, 1981.

## Abstract

### An Investigation on the Theological Function of a Preaching in Time of Covid19-Pandemic

Prof. Dr. YunGab Choi  
(Faculty of Theolog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lineate the theological function of preaching by closely examining the proclamation of the servant in Isa 61. Due to the Covid19-pandemic, which has interrupted the public gathering, most churches have had to change the manner of worship from public and offline service to online service via SNS. Significantly, such a transition in worship makes the preaching an irreplaceable essential task in all ministries and gatherings of the

church because of its theological and pastoral influence in the online spa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illuminate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preaching by examining the proclamation of the servant in Isaiah 61 biblically and thematically.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literature on Isaiah 61 and summarizes the major topics and debates on it. The second part will explicate the overall structure and main theme of Isaiah 61, while the third part will demonstrate that the servant's proclamation in Isaiah 61 reflects the creation proclamation in Genesis 1 and Jubilee proclamation in Leviticus 25 linguistically and thematically.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establish that preaching(proclamation)is the divine medium(tool) which forms the community of faith into the new creation.

Key words: Preaching, Proclamation, Isaiah 61, Creation, Jubilee